



# 제판업계 위치 각인, 세계로의 도약

## R&D활성화 · 적극적 영업활동

김도원 / (주)웅덕산업 대표이사

기업과 금융계의 구조조정이 시행되면서 경제전반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야로 포장산업이 포함되고 또한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 어려움에도 주저하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업이 있다.

지난 1996년 설립된 (주)웅덕산업은 포장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연포장 업계의 중요부인 제판업계에 위치를 각인하고 있다.

(주)웅덕산업의 김도원 사장은 “현재는 인터넷이라는 도구로 전 세계가 실시간 정보교환이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를 우리 포장업계에서 잘 활용하면 업계의 발전과 외국선진업체와의 경쟁력 또한 충분히 제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라며 “그 예로 요즘 흔히 대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B2B(Business To Business)시스템을 구축하면 집단구매 및 공동물류 사용 등 기업의 비용 절감과 기술정보교류로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포장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김도원 사장은 4년전 ‘수성 잉크용 그라비아 인쇄용 실린더 개발’이라는 창업이념을 가지고 (주)웅덕산업을 창업했고, 이를 이루기 위해 Laser

Stream System에 신기술 투자를

비롯하여 연구개발 또한 열심히 노력

한 결과로 근래에 그 결실을 보고 있다.

그라비아 인쇄용 실린더는 100% 주문생산 방식으로 모든 상황에 연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FMS(Flexible Manufacture System) 체제로의 생산라인 구축으로 각 전담 부서간의 협조, 분업화된 라인에서의 업무 공조를 적기적소에 실행시키는 것을 회사 운영방향으로 삼고 있다는 김도원 사장은 “그라비아 인쇄용 실린더 제작분야에서 최고의 설비와 최상의 제품, 최단의 납기로 업계를 선두 해 나갈 것이다. 이에 항상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업을 창출하기 위해 전임직원이 노력할 것이며, 그라비아 업계의 수성잉크 인쇄를 위해 미진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 고선수 · 저심도 수성잉크용 금속롤개발

(주)용덕산업은 1999년 벤처기업선정과 중소기업청 경기중소기업인 기술상 수상, 우수 품질(EM)인증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이어 지난 2000년 11월에는 신기술 유공기업 부분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 했다.

“기존 제판방식의 문제점을 연구 보완하여 국내 최초로 고선수(350 1/inch), 저심도(12-13 $\mu$ m)의 수성잉크용 금속롤을 개발해 환경친화적이고 국내 그라비아 인쇄용 금속롤 제작기술을 한층 더 높였으며, 국외 선진업체와 동등한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노력의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R&D의 활성화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업활동 범위를 넓혀 내수뿐만 아니라 대외수출부품에도 역점을 두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주)용덕산업은 지난 7월 (주)용덕디앤시의 디자인팀을 통합시켜 제품사양에 맞는 디자인을 창조하는 첨단작업까지 소화하고 있다. 특히 그라비아 전문 소프트웨어 씽크-프로(Think Pro)를 비롯해 Quark, Photoshop, Illustrator 등 전문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메킨토시 시스템. 또한 화상처리 제판전용

워크스테이션인 싸이텍스(Scitex)시스템 세계 최고의 필름 출력기로 그라비아 망점이 탁월한 이미지 세터인 Dolev시스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김도원 사장은 제판공정의 효율성을 염두에 둔 공장의 배치와 함께 사내 복지시설에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 1천7백여평 남짓의 공간의 한 옆에 2층 규모로 지어진 복지관에는 기숙사 시설을 갖추어 직원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고 있으며, 복지관 앞마당은 자체 주차는 물론 휴식시간에 직원들이 운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었다.

마지막으로 “포장업계에서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이는 당장의 이익은 생길지 모르지만 업계 전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업계에서 이같은 업체에 대해 엄중 경고와 문책이 가해져야 할 것이며, 품질과 납기등의 정당한 경쟁으로 영업활동을 하게끔 되어야 한다”는 김도원 사장의 당찬 모습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그만의 방식으로 잘 헤쳐나가기라 생각된다. ☐

권해진 기자